

전남 서해안 AI (조류인플루엔자) 초비상



전남의 주요 철새 도래지인 해남 고천암호 인근 발에서 흰뺨검둥오리 떼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원이 겨울철새의 분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철새 남하루트인 전남 서해안도 AI 발병이 우려되고 있다.

철새 남하루트 집중 예방 방역대책 시급

영광~무안~진도 쏠지역 감염 노출 '사후 약방문'식 차단 작업으로 한계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전파하는 주범으로 철새가 지목되고 있지만 전남도를 비롯 철새 남하루트에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은 AI가 발견된 뒤에야 '사후 약방문' 식으로 차단 작업에 나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되자 도내 모든 닭·오리 사육농장에 일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영광, 담양, 장성, 곡성, 구례 등 전북과 인접한 경계지역 도로 및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방역 초소를 설치, 가금류 운반차량 등을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의 양계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13개 시·군 67개 농가에 대한 특별 예찰을 실시하고, AI에 감염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오리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천여 건의 오리 혈청검사도 의뢰해놓은 상태다.

또 매년 철새 이동철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에는 해남 고천암 등 도내 4곳의 철새도래지에

각각 4~5개씩 모두 16개의 조망대를 지정, 이곳에 생석회가 담긴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탐조객들이 AI를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새 도래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철새 이동철엔 집안에 가둬 기르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4개 철새도래지에서 철새 분변 160점을 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AI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전남도의 이 같은 대책은 그러나 타지역에서 AI가 발견된 뒤에야 마련된 것이거나,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 조망대 등 일부 특정 장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감염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해남 고천암 등지의 도래지를 찾는 철새들은 먹이를 찾아 지를 40~60km의 범위로 퍼져 활동하는 만큼, 전망대 주변 극히 일부 장소만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실

시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철새의 특성상 영광, 장성, 나주, 함평, 무안, 해남, 진도 등 철새 남하루트에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은 특정 농장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지역이 AI감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철새의 이동 경로를 철저히 방역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철새 남하루트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는 철새 이동철이 시작되기 전 마을 진입로에 공동 소독장을 마련하고 닭·오리의 노천사육을 삼가는 등 더욱 확실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AI 방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철새 도래지 중에서도 특정 장소, 그리고 닭·오리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철새 남하루트를 따라 모든 지역을 철저히 방역하고, 마을 진입로마다 소독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겨울철새 40만마리 전남 찾아

가창오리 가장 많아...10월·11월 남하 시작

한반도를 찾는 겨울철새는 종마다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등이 겨울철새 중 가장 빠른 10월 말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며, 가창오리·고방오리·기러기 등은 11월 초에 남하를 시작한다. 두루미는 상대적으로 늦은 12월부터 한반도로 도래한다.

한반도를 찾는 겨울철새는 전국적으로 100만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남에는 최고 40만마리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에 도래하는 철새는 가창오리가 대부분이며, 청둥오리·쇠기러기·큰기러기·고방오리·붉은부리갈매기·큰고니·흰뺨검둥오리 등 30~40여종이다. 임주형기자 jhlim@

“盧대통령 정상적 국정수행 어려운 상태”

與 이계안 의원 ‘불법행위 굴복 발언’ 비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것은 불법행위에 굴복한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발언을 하는 순간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첫 선서내용”이라고 운을 뚫 뒤 “국회와 국민이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포를 자행해도 대통령은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보다 더 큰 정치를 해야 마땅하다”며 “그 발언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서에 비취볼 때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이 ‘불법 굴복’ 발언 대신 차라리 87년 헌법체제의 내재적 한계 극복을 위한 개헌론을 제시한 뒤 새로운 틀이 도출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다음 대통령과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길 당부하면서, 미련없이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해방구’ 발언 어물쩍 넘기나

한나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할 듯...광주지역 반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 해방구’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갑 의원을 대신해 경남 창원 지역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 대표는 이틀동안 경남 창원 농장과 파프리카 농장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 봉사활동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김용갑 의원이 동참했고, 황우여 사무총장,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유기준·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 등 당직자들도 함께 했다.

강 대표는 3일 봉사활동 현장에서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한다”며 “당의 윤리라는 것이 서로 기강을 잡고 단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갑 의원 등의 당 윤리위 활동과 관련 ‘범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명 등 당원권 정지 조치가) 일회성 홍보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같이 사과하고 합쳐서 서로 반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며 결국 화합하는 것이 정치”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 오는 9일부터는 이틀간 광주를 찾아 사회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3일 “강 대표가 이번 주말에는 광주와 그 인근에서 1박2일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지만, 장소와 동행의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내는 물론 여당, 그리고 광주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대변인은 3일 “한나라당이 김용갑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변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위선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이번 강 대표의 태도로 볼 때 참정치는 공수포 납탈의 사례가 될 것이고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김용갑 의원의 냉전적 사고와 색깔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발언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철새 전문가인 이두표 호남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가 해남 고천암호에 도래한 철새를 쌍안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